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는 매화가 제격인데  
아직 피지 않아 만생 국화로  
아쉬운 겨울의 식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수한 국화의 분재이오며  
순서에 따라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작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를 전해드리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지난해에 화심이 풍부한 소형 국화의 번식에 조그만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가을 국화전시회에 흰색 노랑화심 소국이

전시되어 참으로 황홀하였습니다. 같은 꽃인 경우 흰색은 약재로서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雪華란 명칭으로 출품되었는데 뿌리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경제력으로는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사물에는 모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를 보고 지적하는 글은 결국 자신의 지식이고 관점이고 한계입니다. 글을 남기지 않은 분들은 현자로서 金人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土人이고 달변인 銀人이 못됩니다. 우리 동호회에 금인이나 은인보다는 저처럼 부족한 토인이 많았으면 합니다. 저는 잘난 사람보다 저처럼 조금 부족한 분들이 호감이 가더군요.



국화도 조금 부족한 꽃송이가 작은 품종이 대세입니다. 다른 곳에  
올린 글을 이곳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재를 만들고 사진을 올린 분들도 자신의  
작품이 소개되기를 바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금지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여 주시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소유한 하나의 분재와 제가 올린 하나의 사진만 남기면 됩니다.



### 국화분재의 시대별 특징

매화는 아직도 한 달은 지나야 볼듯합니다.  
본래 겨울 매화라지만 사실은  
봄으로 이동하는 늦겨울에 볼 수 있더군요  
국화의 분재는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소국으로 한 줄기에 꽃송이가 많은  
공통점이 오늘날의 대세인 듯합니다.  
많은 사람이 직접 참여하여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시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됩니다.



1960년대 초반은 한 그루에 큰 국화  
한 송이를 키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영웅의 시대였고 실제로 박정희중심의 개발시대였습니다.  
1970년대 초기 4인방시대가 잠깐 있었고, 그때는 한 분에 한 줄기에서  
4-5송이의 대국이 유행하였습니다.  
80년대 초에는 세 줄기에 세 송이 국수처럼 흐드러진  
국화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삼김시대를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현재는 한 줄기에 여러 송이가 피는 소국이 대세이고,  
꽃잎보다 꽃술이 많아서 향기가 좋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만드는 직접민주정치에  
가까운 시대를 반영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행복보다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주어야 당선되는 시대인가 합니다.

분재 사진을 보고 잠깐 어설픈 생각에 젖었습니다.

좋은 해석이나 관점이 있으시면

다양하게 펼쳐 보이시면 국화분재 앞에서

아름다운 紙上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위의 화분은 다육식물입니다. 사실은 추위에 약한 열대의 사막식물이지만 집안에 두면 겨울을 이기고 봄에 건조한 곳에 내어놓으면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식물을 알고 보면 모두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더군요. 모두가 인간의 분신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두 소중한다고 하겠습니다.

명주가 세모가 드림